

광주 과격 이미지 실상과 다르다

광주에 투자하려는 외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사분규다. 민주화 과정에서 덧붙인 투쟁 이미지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전국의 1.7%인 2건에 불과, 국내 어느 대도시보다 노사관계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기업 경영인들은 올해 지역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해 노사협력의 바탕으로 한 산업평화가 차츰 정착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28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2007년도 광주지역 노사분규

지난해 노사분규 2건...전국의 1.7% 불과 근로손실일 감소 등 산업평화 정착 추세

발생 건수는 2건, 근로손실 일수는 9천508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의 5건, 4만126일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민선 3기 이후 노사분규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04년 35건, 11만9천932일과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의 노사분규 건수는 2004년을 고비로 2005년 7건, 2006년 5건 등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도 2005년 3만6천

991일, 2006년 4만126일, 2007년 9천508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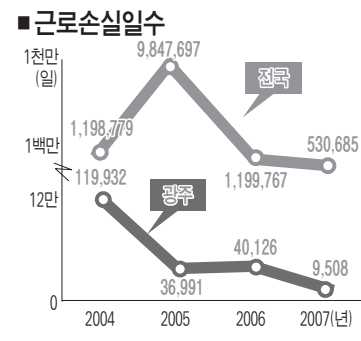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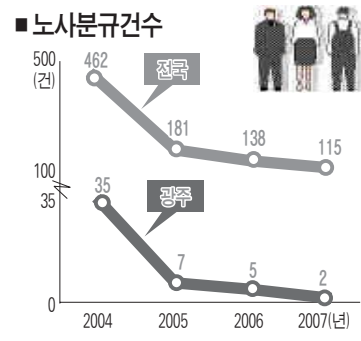
지난해 전국 노사분규 건수가 115건(근로손실일수 53만685일)에 달한 가운데 광주지역의 노사분규 건수는 2건(근로손실일수 9,508일)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광주시 강신기 경제산업국장은 “외부에 비쳐진 광주지역 노사관계 이미지가 실제보다 과대 포장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생산

장 등 대규모 사업장 외에는 파업 등의 극단적인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이 지역 노사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전남 경영자총합회의 올해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경영인이 37.3%로 지난해 2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더 불안할 것”이라는 답변은 23.7%였다.

광주시 강신기 경제산업국장은 “외부에 비쳐진 광주지역 노사관계 이미지가 실제보다 과대 포장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생산



작인 노사분규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봄·봄·봄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황사가 나타나 는 곳도 있겠다.

2월 29일 (음 1월 23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1~13°C
부산	구름 많음	1~10°C
대구	구름 많음	2~12°C
대전	구름 많음	2~13°C
서울	구름 많음	-2~13°C
인천	구름 많음	-1~13°C
안양	구름 많음	-2~13°C
충주	구름 많음	-2~13°C
청주	구름 많음	-2~13°C
전주	구름 많음	-2~9°C
제주	구름 많음	-1~11°C
목포	구름 많음	-5~12°C
여수	구름 많음	4~10°C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7:11 썰물 < 12:22
여수 밀물 < 01:38 썰물 < 07:57

▲해돋이 07:03 ▲해질 18:27 ▲달돋이 01:31 ▲달질 11:04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9	3/6	0/7	-2/8	-2/10	-1/11

식약청 '국산 장어 안전' 검사 결과 발표 안해

호남 양식업계 '애꿎은 피해'

최근 중국산 양식장어구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면서 전국 양식장어의 72%를 차지하는 전남북 지역 양민(養鰻·양식장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양민업계는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정부 관계기관이 국내산 장어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여 발암물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양민업계는 지난 2005년 중국산 장어의 발암물질 검출로 도산 위기에 처했던 2년전의 악몽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양민 수산업협동조합은 식약청이 지난 22일 국내산 민물장어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남 D수산과 H수산 등 전국 23곳 양민장어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 의뢰한 결과 23곳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중국산 장어에 대한 불신이 국내산으로까지 확대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원의 검사 결과를 보도해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청 등이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전국의 71%에 달하는 전남북 지역 양민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양민장은 263곳(129ha), 전북지역은 132곳(58.94ha)으로 전국의 71%(480곳)를 차지하고 있다. 말라카이트그린 보도 이후 영광 J양민은 월 평균 출하량이 8t(1t당 1천800만원 선)에서 3t으로 감소했으며, 영암 S수산도 12t에서 3t으로 급감했다.

장어를 판매하는 횡성 등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광주 D횡성 집 주인 임모(32)씨는 “국내산 민물장어의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애꿎은 우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개했다.

전국양민수협 김성대 조합장은 “정부는 검사 결과대로 ‘국내산 장어는 안전하다’는 내용을 하루빨리 발표해 양민 업계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중양공원 살리기’ 쓰레기 수거
광주새마을운동 서구지회 등 회원 70명이 28일 서구 화정동 중양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들은 이날 ‘중양공원 살리기 운동 캠페인’ 차원에서 50kg 중량제봉투 50개 분량의 쓰레기를 2시간동안 수거했다.
/최원배기자 choi@kwangju.co.kr

‘텔레비전 소지자에

시청료 징수는 합헌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64조 및 67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우모씨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의원 자녀 특채 동구청 특감 촉구

광주경실련·참여자치 21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 21은 광주시 동구청의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해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채용공고 없이 동구의회 의원들의 자녀를 특별채용한 동구청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광주시가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자치구의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현지 구의원이 자신의 자녀를 공무원 특별채용에게 권한을 행사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은 몇몇 의원의 문제가 아닌 동구청의 무원칙하고 부당한 인사행정에서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또 “말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동구의회가 직접 윤리위원회에 회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 동구의회의 의원 2명과 전 광주시의원 1명의 자녀 3명을 공개채용절차 없이 특별채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 54명 3·1절 가석방

‘3·1절’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범 수형자 54명이 가석방된다.

광주지방교정청은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전남지역 교도소 수형자 중 모범수형자 54명을 가석방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5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고졸 검정고시 합격과 이용가능사 자격증 취득하는 등의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김모(26)씨 등 모두 20명의 수형자가 가석방된다. 이밖에 ▲목포교도소 10명 ▲순천교도소 19명 ▲장흥 교도소 5명 등이다.

/최원배기자 cki@kwangju.co.kr

자전거 뱃삿은?

목포~제주 3천원
고흥~제주 1만원
소규모 선사는 무료

자전거를 타고 배를 타면 자전거 뱃삿을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다. 여객선사가 운송약관에 따라 자전거 운임을 받을 수도 공짜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자전거 뱃삿도 천차만별이다.

우선 목포~제주간 여객선의 자전거 삿은 3천원. 그러나 비슷한 거리인 고흥~제주간은 3배 이상 많은 1만원이다. 승객운임이 2만원이 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자전거 삿이 선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무엇인 경우에도 있다. 인천항에서 경기지역 일부 섬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여객 선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자전거 뱃삿을 별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열차나 버스에 자전거를 갖고 탈 경우는 어떤가. 두 바퀴를 제거하고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 화물인 만큼 별도 요금이 필요없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보이스피싱·경품 당첨 사기 ‘주의’

최근 법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인터넷 쇼핑물 사기, 부업알선 사기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유형과 대처방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나섰다.

공정위는 3월을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정하고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41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한 달 간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부터 “세금, 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을 환급해준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다”는 내용까지 다양한 사기방식을 통해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네비게이션 무료 제공, 주방용 가스레인지 후드 교체 등을 사칭한 사기도 많았다.

/연합뉴스

www.seonho.co.kr
1544-8567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료/입/다/강수

마술지도자 강사취임 연구생 모집(마술지도자 자격증 과정)

수료후특전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